

선미촌, 인권·문화의 예술촌으로 변신중

전주시, 폐·공가부지·전주농협 앞 시유지 1억5000만원 사업비 들여 시티가든 조성공사완료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 녹지와 휴식공간 등을 갖춘 시티가든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60여년 동안 닫혀있던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열린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선미촌 내 첫 번째로 매입한 폐·공가부지와 전주농협 앞 시유지에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0여일간 진행해온 2개 시티가든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억의 공간과 인권의 공간으로 각각 조성된 시티가든은 지역주민은 물론 전주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선미촌의 어둡은 이미지를 걷어내고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됐으며, 준공검사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은 공권력을 동원한 정비와는 달리 행정과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인권과 문화 예술을 통해 집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은 기반으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구상을 현실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토목과 건축 공동체 육성분야로 나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일 오전 선미촌 시티가든과 현정시청 입구를 앞두고 있는 매일 성매매업소 등을 방문해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다. 이 프로젝트는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의 정점인 아트팩토리과 아트레지던시, 여행길 조성, 공동체육성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시는 또 업사이클센터 설치하기 위한 국비 24억을 확보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다.

재활용품에 가치를 더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선미촌의 문화재생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핸드메이드시티(수제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 문화재생은 예술의 힘으로 여성 인권과 주변 주민들의 삶을 살려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곳은 앞으로 여성 인권의 상징과 아름다운 공원, 시민 예술촌으로 거듭나 모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밝은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선미촌을 창작예술공간으로 전환하고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한영, 선미'가 5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다.

'한영, 선미'는 대중순수예술가 3인의 선미촌 100일 살아보기인 '100일의 움직임', 라운드테이블 파티인 '너를 우리집에 초대해', 전시 발표 형태의 '100일의 시간을 공유한다' 등 3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주교대 예비교사 대상 혁신·인권교육 아카데미

전라북도교육청이 20일 예비교사인 전주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 3백여명을 대상으로 혁신·인권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교육 관련 정책자들이 강사로 나서 혁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교육의 성과, 진행과정, 전망 등을 예비교사들과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의 흐름과 전라북도의 혁신교육, 교육과정·수업·평가 사례, 전북교육청의 임용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에는 인권교육 아카데미가 총 7교시로 동안 진행된다.

인권옹호관과 장학사,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학생 이해 및 인성·인권 교육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국립대학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평가 전북대 우수대학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 가산점·정부포상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교육부의 2017년 국립대학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올해 시행될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dNT)' 평가에 가산점을 받고 정부포상 등 대학 포상인원을 추가로 배정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39개 국립대를 규모별로 구분해 인사행정 인프라와 승진·보상·보직관리 운영, 교육후원 및 역량강화, 특성화, 향상도 등 5개 영역을 면밀히 조사한 것. 전북대는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재정부담과 균형감 있는 인사제도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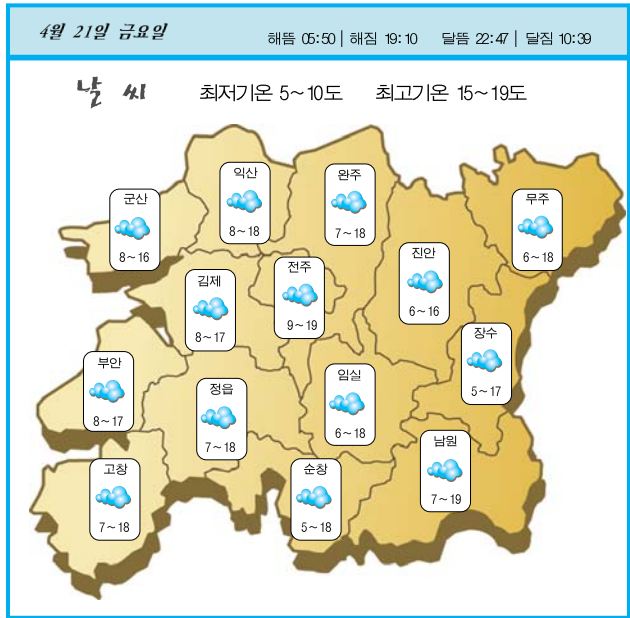
실제 전북대는 승진 심사 시 심층면접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고 국립대 최초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승진과 성과평가, 보수체계를 일원화 했다.

또한 대학 성과 창출에 기여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직급별 핵심 역량 모델을 구축하고 부족한 역량을 진단해 교육으로 보완하는 선순환 교육 시스템을 운영,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

관인증 평가에서 직원 전문성 개발 우수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직원 역량과 대학발전의 원동력인 협업과 소통 강화를 위해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총장 직속으로 소통과 복지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이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특히 전북대는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직원들이 동참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전 구성원이 대학 물레길을 걸으며 소통하는 '워크토크데이'와 총장이 직접 구성원과 만나는 '토요 데이트', 직원 전체가 기차 여행을 통해 소통하는 '소북트레인' 등 참신한 소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주남초, SNS 통한 사랑 실천

백혈병 투병 중인 학생 혈액 수급

전주남초등학교 3학년 김세영 학생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다. 소식과 함께 급하게 AB형 수혈이 필요하다는 가정통신문이 전주학부모회 밴드에 올라왔다.

전주남초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으로 김세영 학생이 지난달 14일 골수이식 수술을 해서 AB형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수혈을 하루에 2번씩 해야 하는데 AB형 혈액 수급이 원활치 않아 학부모 및 전주남초 가족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소식을 확인한 전북 학부모회 담당자는 각 지역별 학부모회 밴드에 전파했고 많은 학부모들이 서로 공유하여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이후 50여개 지역별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시민 학생 등이 헌혈에 동참해 이달 말까지는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김세영 학생의 부모는 5월에 또다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관한 담임교사는 "학교에서도 세영이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세영이가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주실 분들은 전주남초 교무실(063-284-4064)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전라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예방사업의 이해, '흡연예방·금연실천 심화학교 운영 방안', '학교흡연예방사업 기획 및 평가, 운영 사례 공유'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 연수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학교 62교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62교의 교장, 교감 등 관리자 대상 연수가 진행된 바 있다.

연수는 '국가금연정책 및 학교흡연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바람직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